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34호

결승전서카롤리나마린꺾고 우승...

세계선수권 첫 단식 우승 안세영, 한국 배드민턴 역사되다

윤현 오마이뉴스기자

진천선수촌 외부인 출입 금지...9월12일 결단식

항저우AG선수단 시간표 나왔다...9월20일 결전지 이동

박대로 뉴시스기자

스포츠계 폭력 관련 문제

스포츠 선수에 대한 도 넘은 폭력. 훈육인가 학대인가?

김민결 뉴스프리존 기자

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세계적 수영 선수의 뉴스위크 기고글이 던진 파장

신필규 오마이뉴스기자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 상습적 폭행 혐의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지도자 4명 2심서 석방

홍현기 연합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세계선수권 첫 단식 우승 안세영, 한국 배드민턴 역사되다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세계개인선수권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7일(한국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열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6위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을 게임 스코어 2-0(21-12 21-10)으로 꺾고 우승했다.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안세영이 처음이다. 그전까지는 방수현이 1993년 여자 단식 은메달, 1995년 박성우가 남자 단식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손쉽게 우승한 새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재작년 8강, 작년 4강에서 세계랭킹 2위 '숙적'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가로막혔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결승에 오르며 우승의 기회를 잡았다.

안세영은 1세트부터 마린을 압도했다. 4-4까지는 팽팽했으나, 안세영이 안정적인 수비로 마린의 실수를 유도하며 단숨에 10-4로 달아났다. 주도권을 잡자 과감한 공격까지 선보이며 마린을 압박한 안세영은 18-9 '더블 포인트'로 앞서나갔다.

20-12로 세트 포인트를 잡은 안세영은 마린의 클리어가 코트 밖으로 나가면서 먼저 1세트를 따냈다.

안세영은 2세트에도 4연속 득점을 올리며 7-2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마린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특기인 공격으로 맞서면서 10-10 동점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마린의 반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마린의 실수로 다시 앞선 안세영은 신들린 듯한 공격으로 무려 10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끝내고 말았다.

한국, 금메달 3개 획득... 역대 최고 성적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은 안세영의 활약 덕분에 세계선수권에서 '무관의 한'을 풀었다. 안세영의 다음 목표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 외에도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서승재-채유정이 세계랭킹 2위의 정쓰웨이-황야충(중국)을 게임 스코어 2-1(21-17 10-21 21-18)로 꺾었다. 혼합복식 우승은 2003년 김동문-라경민 이후 20년 만의 쾌거다.

또한 남자복식 세계 6위 서승재-강민혁이 결승전에서 세계 11위 킴 아스트루프-안데르스 스코루프 라스무센(덴마크)을 게임 스코어 2-1(14-21 21-15 21-17)로 이겼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선수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특히 서승재는 혼합복식과 남자복식에서 연거푸 우승하면서 금메달을 두 개나 목에 걸기도 했다.



항저우AG선수단 시간표 나왔다... 9월20일 결전지 이동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선수단의 시간표가 나왔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D-30 미디어데이를 통해 선수단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오는 25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는 언론을 포함해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선수단만 선수촌에 머물며 대회 준비에 집중한다.

선수들은 대회 개막 전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절차와 금지약물 종류, 국민대 스포츠윤리연구소는 스포츠인권보호 지침(가이드라인), 대한체육회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지침과 위생수칙, 국가정보원은 위험 상황 행동 요령과 대응 수칙을 알려준다.

다음달 9일 항저우 현지 한국 선수단 선수촌이 사전 개촌식을 연다.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수단 결단식이 개최된다. 선수단을 포함해 국회와 정부, 체육계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달 16일에는 항저우 선수촌이 공식 개촌한다. 4일 뒤인 다음달 20일에는 한국 선수단 본단이 인천공항에 집결해 출국한다. 본단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별 선수단은 경기 일정에 따라 개별 이동한다.

한국 선수단이 대회 기간 동안 묵을 곳은 항저우 선수촌과 근교 숙소 3개, 보조선수촌 5개다.

대회 개회식은 다음달 23일 오후 8시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대회 기간 중에 항저우 현지 호텔에서 스포츠 외교 활동이 이뤄진다. 다음달 24일 코리안데이 행사에 국내외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한국 스포츠 영상을 보고 공연과 함께 오찬을 즐긴다.

선수단 공식 기자회견은 2번 열린다. 대회 6일차인 다음달 28일 중간평가 기자회견, 대회 폐회식날인 10월8일에 최종 결산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폐회식은 10월8일 오후 8시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폐회식 다음날인 10월9일 한국 선수단 본단이 귀국한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도 넘은 폭력. 훈육인가 학대인가?

스포츠계의 폭력 관련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습이자 스포츠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선수 폭행 및 성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체육계는 개혁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예뜰 전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제자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이규현 전 피겨스케이팅 코치 또한 미성년자 제자 강간 미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이 사건 이후 그가 선수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가한 사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폭력은 비단 빙상계만의 문제는 아니며 코치와 선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같은 선수 내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례로 얼마 전 SSG 랜더스 2군 선수단에서는 신인 선수의 태도를 지적하며 단체 가혹행위가 벌어진 이후, 가혹행위의 피해자 선수가 해당 신인 선수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내리갈굼'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많은 폭행 사건 중 윤이 좋아 공론화됐을 뿐, 이 사건들이 스포츠계 폭력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법률은 잘 정비돼 있지만...

스포츠계의 폭행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문제인 만큼 관련 법률은 잘 정비된 편에 속한다. 대표적인 관련 법률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데, 해당 법률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오늘날의 국민체육진흥법이 됐다.

'최속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의 개정안에 속한다. 김규봉 전 철인3종경기 감독과 팀닥터, 동료 선수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속현 선수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폭력 등을 저지른 폭력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지도자의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에 더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직무정지 조치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팀닥터와 같은 선수 관리 담당자를 대한체육회 지부 등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으며,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 장관이 매년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및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선수와 소속기관 장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 장 계속

스포츠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는 공론화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폐쇄적이고, 권력관계가 확실하다는 스포츠계의 특성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코치-선수, 선배-후배라는 권력의 갑을 구조가 발생시키는 갑질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코치가 선수의 대학 입시나 대회 출전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코치와 선수의 관계에서 코치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코치가 선수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기량 향상을 위해서든 코치의 분풀이를 위해서든 그 이유에 상관없이 폭력이 묵인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학부모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폭력을 발견하고도 오히려 선수를 타이르며 문제를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뿐만 아니라 선배-후배 간의 권력관계도 코치의 절대적인 권력에서 발생한다. 스포츠계에는 엄격한 상하관계와 위계질서가 당연시되는 문화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코치 또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에게 가하는 폭력을 당연시하고, 묵인하기 때문에 폭행과 '내리갈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

의무적인 스포츠인권 교육, 그러나 그 효과는 미지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포츠계의 방책 중 하나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의무화이다. 선수들은 '선수등록'을 마쳐야만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데, 선수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는 스포츠인권, 스포츠 분야 폭력과 그 특징 및 예방 등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해 학습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교육이라고 해 봤자 20~30분 내외의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동영상 시청만이 의무이니 동영상을 재생해 놓고, 그 내용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선수들이 대다수이다. 이 정도의 교육이 스포츠계에 깊게 뿌리내린 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목소리를 낼 용기

스포츠계에서의 폭력은 선수의 기량 향상과 성적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운동선수로서는 성적, 성취, 금메달, 등수, 대학 진학 등등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권의 존엄성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스포츠계 종사자와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직시하며,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세계적 수영 선수의 뉴스위크 기고글이 던진 파장

"스포츠계 여성으로서 저는 여성 스포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와 괴롭힘, 불평등한 임금과 자원, 여성 리더십 부족입니다. 트랜스젠더 소녀와 여성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성 스포츠는 트랜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차별로부터 보호 받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커밍아웃 한 트랜스젠더 여성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의 NCAA(전미대학체육협회) 디비전 1 여성 챔피언십 출전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2022년 2월 미국, 바로 그 달에 300여 명에 이르는 미국 대표팀 및 국제 수영 선수들과 다이빙 선수들이 NCAA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리아 토마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도 평등한 경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수영 선수인 에리카 설리번은 그 300명 중 한 사람이었다. 설리번은 커밍아웃 한 레즈비언 수영 선수로 2021년 도쿄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참가해 은메달을 따며 유명세에 오른 선수이다.

리아 토마스를 지지했던 에리카 설리번의 행보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3월 설리번은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에 '리아 토마스와 같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지지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설리번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경기 참여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레즈비언인 자신이 온전히 포용되었던 것처럼 리아 토마스 또한 마땅히 같은 환대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두에 인용한 글은 바로 에리카 설리번이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 소수자위해 목소리를 내기

<뉴스위크>에 공개된 에리카 설리번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가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임이 느껴진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여전히 장래가 촉망 받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지위는 설리번이 자신감 있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영국의 성소수자 매체인 <핑크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런 설리번도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관찮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아니라 시스젠더(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출생 시 부여된 지정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여성인 자신이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옹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의아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는데 주저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에리카 설리번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대형 주간지에 글을 보내는 건 다른 일이니 말이다. 자신이 당사자라면 거침없을 수 있다. 자기 이야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원래부터 계속 글을 쓰며 누군가의 권리를 옹호하던 일을 해오던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어색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까지 너무 나서 건 아닐지 고민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당사자에게 향해야 마땅할 여론의 주목을 자신이 가져가는 건 아닐지 걱정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선수들에 대한 공격이 점점 거세지자 에리카 설리번은 결심을 굳혔고 <핑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앨라이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장 계속

정체성과 지향을 넘어 연대하는 사람들, 엘라이

에리카 설리번이 언급한 '엘라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진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엘라이는 동맹·연합을 뜻하는 얼라이언스(alliance)의 줄임말이다.

초창기에 이 단어는 성소수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개념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콩코드 아카데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학교의 교사이자 커밍아웃 한 동성애자인 케빈 제닝스가 다른 교사들을 모집하여 동성애자·이성애자 동맹을 형성한 것이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제닝스는 이 동맹을 통해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한다.

엘라이가 비당사자인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현재 이 개념은 보다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령 2016년부터 시작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나는 엘라이입니다' 캠페인은 성소수자 비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엘라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들도 서로 다른 다양한 정체성과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동성애자 남성인 내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엘라이가 될 수도 있고 양성애자인 누군가가 젠더퀴어의 엘라이가 될 수도 있다. 에리카 설리번이 레즈비언으로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들의 엘라이가 되고자 했던 것도 좋은 사례이다.

성소수자의 엘라이들이 더 늘어나길 바라며

언젠가 인터뷰에서 한 기자분이 나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시민들의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입장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는데 왜 사회적 변화는 이렇게 더딘 것이냐고. 나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단단하게 잘 뭉쳐져 있고 많은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차별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공통의 견해를 가졌지만 흩어져 살아가는 개인들이기에 그렇다고 답했다. 절대적인 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엘라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때로 적절한 역할과 위치가 주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에리카 설리번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닌 자신이 나서게 되는 게 맞는지 질문했던 것처럼. 이때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호명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공통된 입장을 가진 정치 집단을 만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최초의 엘라이로 지목되었던 사람들도 단순히 입장만을 가진 게 아니라 동맹을 형성하고 행동에 나선 점을 생각해보자.

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엘라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침 이를 위한 캠페인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다. 내가 활동가로 소속되어 있는 비온뒤무지개재단에서는 기존의 '나는 엘라이입니다' 캠페인을 확장하여 9월 한 달을 '엘라이 먼스(Ally month)'로 지정하고 더욱 많은 수의 엘라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적당한 계기가 없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서도 되는 일인지 고민이 되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엘라이로서 자신의 역할도 찾고 동료들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 지도자 4명 2심서 석방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직 감독 등 지도자 4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코치 C(30·남)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B씨 등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훈련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으며 C씨는 한 초등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뺨쳐'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주간 스포츠 소식

선수에게 원치 않는 키스한 스페인축구협회장, 25일 사퇴할 듯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21208&plink=ORI&cooper=NAVER

서울시, 지자체 최초 e스포츠 국가대표단 공식 지원

<https://www.fnnews.com/news/202308281426196133>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홍기난동 예고한 20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2838797>

셔틀콕 서승재-채유정, 세계선수권 깜짝 우승…20년 만의 쾌거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7046200007?input=1195m>

클라이밍 김동준,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쾌거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8270020>

거침없는 류현진, 마법과 같은 선발 3연승 질주…토론토 감독 "대단한 선수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701039939083001>

"또 다른 선수 이름 딴 대회 나오길"

<https://www.mk.co.kr/news/society/10816132>

남자배구, 대만 꺾고 아시아선수권 5위로 마무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6_0002427101&cID=10506&pID=10500

우리카드, 유소년 클럽 선수 대상 'Spike Your Dream' 배구 교실 개최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6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